

사도신경 강해 9강 보조자료

(심판만큼 절박한 사랑이 있으랴)

I.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II. 9강 주요 문답 내용(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2문과 52답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52답)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 사도신경의 구조

성부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끔찍한 학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할아버지처럼 가해자들을 귀여워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악을 보고도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는 반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 미로슬라브 볼프, 『베룩과 용서』, 138-139.
